

iii 대안가정

통권7호 (2004/가을. 계간) <http://www.daeanhome.org>



▲대안가정 초청음악회

- 2. 칼럼 / 작은 눈망울이 내 가슴으로 (김선미)
- 4. 대안가정 일기 (9가정)
- 12. 스케치 / 대안가정 부모교육(경북윗마을)
- 13. 스케치 / APT 부모교육(경북윗마을)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대안가정 초청음악회, 대안가정 날씨속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4. 11. 2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작은 눈망울이 내 가슴으로

김선미(대안가정 다혜네 엄마)

그 아이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떠오른 것은 최근이다. 작고 귀여운 얼굴, 잘 웃고 누구나 잘 따르는 약 5세의 여자 아이였다.

대학교 1학년 늦은 봄. 다니던 교회는 병원의 '환우예배소'였는데 그 곳에서 그 작은 아이를 만났다. 들리는 얘기로는 아이의 아빠가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생활터전에서 또 병원에서 애를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아빠가 곧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끼어 들을 수 있었다.

내 옆에서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 궁금해서 알아보니...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그 사건은 내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 날 어두운 기도실에 들어가 얼마를 울었는지 모른다. 안타깝고도 웬지 너무 슬펐다!! 눈두덩이 붓도록 한참을 울었다. 웬지 모를 죄책감도 있었고, 화도 났었다. 하여간 그랬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때 그 아이의 엄마의 선택은 잘못이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이 간다. 그녀에게 메어진 짐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 특히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났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형편에 남편의 긴 병원생활이 고통을 가중시켰으리라...

나는 초보위탁모이다. 다혜가 우리가정 안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정에 대한 사랑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처지의 부모를 대신해 잠시 그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동안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의 칠흙같이 어두운 생활 속에서 잠깐 숨돌리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같이 들어주는 것이 위탁모인 나의 여러 가지 생각 중 하나이다. 그 때 그 아이의 엄마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다혜의 친모도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는 1993년 12월에 남편과 결혼하여 3년 만에 첫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심정은 여느 부부 못지 않았기에 3년이란 시간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린다.

아이를 '몸'으로 낳을 수 없다면 '가슴'으로 낳으리라는 다짐을 그 어느날엔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첫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으니 산고를 치러도 기뻐고 잠을 못자도 더 행복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풍요로운 정서 속에 살 수 있었다.

어느덧 그때 낳은 아기는 속 깊은 9살이 되었고 예쁜 큰 딸과 씩씩한 둘째 딸을 더 낳아 나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막내가 6살 유치원에 입학할 앞둔 2004년 초에 이제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위탁모'가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끌림이 있었다고나 할까? 우리의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고 나면 아이를 입양하거나 위탁을 하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왔었기에 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우리 가정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여러 기관을 알아본 끝에 '대안가정운동본부'에 등록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혜가 내 가슴으로 왔다.

18개월 된 조그마한 여자 아기가 자기의 짐 보따리 (쓰던 기저귀 봉지, 어느것 하나 짝을 이루는 것이 없는 옷가지 몇 개, 이미 버렸어야 할 우유병 2개, 겨울 신발 1켤레, 엄마랑 찍은 사진 몇 장, 십자가 목걸이, 모자수첩 등)를 옆에 두고 사회복지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코끝이 찡해오며 눈물이 아른거려서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은 기쁘고도 슬픈 일인 것을 그 때 처음 알았다.

우리 집까지 오는 차안에서 아이는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다혜처럼 위탁아동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지 할 사람을 안다고 한다. 다혜 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떼를 쓰고 울고 보호자를 난감하게 하다가도 위탁모에게 가면 얼른 안겨서 울음을 그친다고 한다. 그 말도 반갑고도 슬픈 말이었다.

이제 다혜가 우리 가족이 된지 4개월이 되었다. 첫 날 다혜는 나와 둘이서 잤다. 그날,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나도 다혜는 잠을 자지 못했다. 불꺼진 어두운 방에서 내 얼굴에 바짝 다가와서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기가 왜 낯선 곳에 와 있는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그리고 불안해서인지 밤이 새도록 여러번 깨어서 울었다.

그러기를 여러 날, 이제는 내가 불꺼진 어두운 방에서 다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다혜는 작고 귀여운 입술을 오므리고 곤하게 자고 있지만 내 가슴이 아프다. 위탁기간이 다른 아동에 비해 긴 다혜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보내야 하는데, 보내는 우리보다 다혜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을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집에 온 그날보다 더 커버린 다혜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될까? 그것 역시 고스란히 다혜의 몫인 것을...

아이들은 모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몰랐으면 좋겠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와의 슬픈 이별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위탁가정에 보내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일찍 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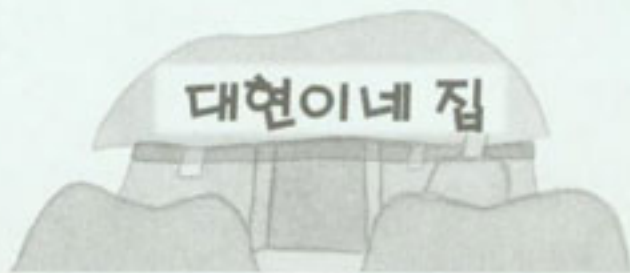
다혜는 우리집에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다. 앞으로 다혜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될런지도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고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다혜는 우리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든지...

첫 아이를 출산한 '초보엄마'가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모든 것을 위로받듯이 '초보위탁모'인 나도 아이의 하루하루 모습 속에서 울고 웃고 흐뭇해하며 지내고 있다. 어느 아이인들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낮을 가리던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밤잠을 자지 못하던 아이가 잘 자고, 위탁모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아이가 언니 오빠랑 잘 노는 모습에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쁨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도 역시 그렇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아이'가 잠시 머물다 소리 없이 가는 것이다. 만남은 헤어짐을 기약한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만남은 더 그렇다. 그래도 헤어짐을 기다린다. 그것은 곧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고, 친엄마 품에 안기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혜의 '그날'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헤어짐의 슬픔과 고통은 다혜의 몫이 아닐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정을 포함 3가정이 위탁가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가정을 신청한 가정도 3가정이 더 있다. 가슴이 아파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잠시라도 쉬게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만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안가정 다혜네 엄마인 김선미씨가 월간『時兆』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04. 8. 4 / 대현이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대현이의 새로운 큰 누나입니다. 어제 바쁜 상황에서 대현이를 만나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대현이를 다시 보니 대현이는 정말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생은 필리핀에 있기에 저희 가정은 예전부터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이뤄져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예쁜 남동생이 생기다니... 저희 가정에 있는 동안 부모님들과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대현이 아빠 힘내세요 ☆ 화이팅

2004. 8. 14 / 대현이 아빠 보세요

대현이 아빠 안녕하세요? 대현이네 집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대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힘들고 어려웠던 날을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밥도 잘 먹고, 또 한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가정예배를 통해 배운 노래는 지금은 상당한 수준급입니다. 대현이 아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도 있죠. 이제 그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세요. 대현이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가정에 대현이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현이 아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4. 8. 15 / 사랑해 키퍼야!

아침부터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대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지르는 소리 때문이죠. 이유인즉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 녀석과 친해보려고 대현이가 먹

이를 주네요. 키퍼(우리 집 개)가 고맙다고 꼬리치며 덤비니 대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네요. 암튼 대현이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참 기쁩니다. 대현이는 참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영어도 하구요, 한글을 가르치면 그날 배운 단어는 모두 알고 넘어갑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지만 대현이로 인해 힘들지 않게 잘 넘겼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대현이를 돌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2004. 8. 26 / 대현이의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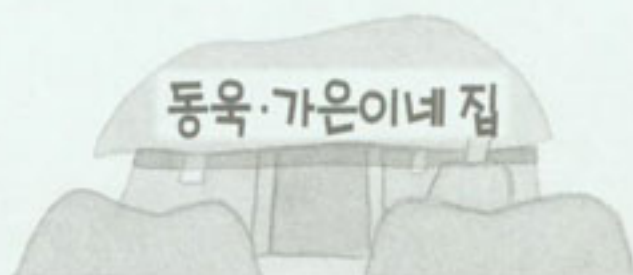
대현이가 네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빠께서 우리 대현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대현이가 태어나던 4년 전에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대현이의 행복을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렸다. 아빠의 선물은 뭘까요? 츄리닝. 엄마의 선물은 예쁜 운동화. 맛있는 케익, 대현이가 좋아하는 생선,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맛있게 잘 먹는 대현이가 너무 예쁘다.

2004. 8. 30 / 대현이의 어학 능력

대현이는 어학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자주 접하는 선교사와 금방 친해져서 영어로 인사를 능숙하게 한다. 한 번 가르치면 몇 번이나 스스로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숙지한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재능을 가진 것 같다. 정말 이름처럼 크게 현명한 사름으로 성장하면 참 좋겠다.

2004. 9. 11 / 대현이 어린이 집 입학했습니다

9월 8일부터 「그림나라 어린이 집」에 입학했습니다. 첫날에는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질려고 안달이었는데 다음날부터는 잘 다닙니다. 노래도 배우고, 구름 그림도 그렸다고 자랑입니다.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대현이가 대견스럽습니다.



2004. 7. 1 / 남매일기

가은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저려온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아무튼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책임이 무거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오줌 싸다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가은이를 보니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욱이! 이 아기가 자기 동생인지는 아는 지 모르는지... 아무튼 약간의 경계와 두려움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가은이의 첫 나들이는 봉화교회였습니다. 가은이는 저와 나래와 함께 노래연습에 가고 동욱이는 아빠를 따라 갔습니다. 참고로 동욱이는 아빠를 너무 따릅니다. 샘이 날 정도로... 가은이는 첫 밤을 크게 보채지 않고 잘 잤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취침. 어릴 때는 우유도 여러번 먹는데 자기 전에 우유를 주지 않고 잠이 들더군요. 새벽에 일어나서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계속 자서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엄마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2004. 7. 6 / 14일째

동욱이가 우리집에 온지 오늘이 14일째!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지난주에 가은이가 온 후로 동욱이는 조금씩 표현과 행동들이 변해가고 있다. 울음을 시작하면 그치지 않고(길게 오래칭얼거림),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가끔은 가은이 옆에 앉아서 같이 웃어도 본다.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가은이는 인기 짱!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안아줘서 누워있지 않으려고 한다. 우유 양을 줄여서 좀 더 자주 먹인다. 한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위가 너무 커

지기에 먹이는 방법을 바꾸었다. 동욱이는 블록놀이를 하고 있다. 나래가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 가은이는 예쁘니까 우리가 계속 키우자고...(나래는 지금 6살) 나래가 보기에 아이들 예쁘기보다, 아직 동욱이는 크게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가은이의 미소는 모두가 좋아한다. 지금 가은이는 고개를 돌려서 안아달라고 힘을 주고 있다. 두 아이 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2004. 8. 15 / 시원한 바람!

여름의 끝인가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넘 시원해요. 동욱이는 누워서 빈둥빈둥, 가은이는 우유 한 병 똑딱! 달랑이를 들고 놀고 있고 FM에서는 클래식 흐르고, 정말 평안한 시간입니다. 동욱이가 말을 안 해서 조금은 걱정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라고 하고 엄마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네요. 저에게는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자기를 나타 내기도 하고, 동욱이의 표정이 많이 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더욱 좋아지리라... 가은이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보행기를 타고 뒤로만 간다. 돌, 부르면 옆으로 굴러서 온다. 아직 기는 동작이 부족!

2004. 9. 9 / 드디어

드디어 가은이가 혼자 앉았습니다. 옆드린 다음 팔을 짚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기! 몸무게가 8kg이고... 밥과 분유, 두유를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가은이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은 기뻐주세요. 가은이의 혼자 앉기에 성공한 오늘을 위해 다같이 박수. 짹짹!!!

2004. 9. 20 / 즐거운 추석되세요!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가 계신 서울로 갑니다. 나레고모네 집에서 보낼려고요. 우리는 또 도로위의 작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차가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서울 갈 때는 집에들 계세요. 모두들...(호호호) 동욱이가 자기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다혜네 집

2004. 6. 21 / 나를 제일 반기는 막내!

1박2일 외출을 하고오니 다혜가 나를 제일 반긴다. 큰 딸은 보조개만 쓱 들어가라 웃음으로 반기고, 둘째 딸은 아빠 목마를 타고 있었고, 아들은 화장실에서 불일 본다고 소리만 들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반가운지 아닌지 웃기만 하는데, 다혜는 두 팔을 귀 뒤로 딱 붙여서 만세를 부르듯이 내게 와서 안기며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감동받았다. 정말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다혜가 너무 보고 싶었다. 하룻밤인데, 어제 오전에 집을 나가서 오늘 오후 6시에 들어왔는데도 가족이 그립고 반갑다. '그대를 기다리는 10개의 눈이 있다'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보다 다혜의 반김이 나를 기분 좋게 했다. 그래서 집이 엉망인 것도 다 용서되었고, 쓰레기더미 같아도 웃을 수 있었다. 안 그러면?(상상에 맡김)

2004. 7. 7 / 가방을 돌려메고

아침마다 오빠랑 언니들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면 다혜도 같이 나선다. 내가 안고 같이 배웅을 해주는데 어느날 내가 안 나갔더니 다혜가 언니 오빠의 가는 모습을 보고 서럽게 울고 있다. 아이들도 가다말고 그 자리에서 다혜를 보고 서 있고, 오늘은 다혜도 예쁜 가방을 메어 주었다. 신이 난 다혜는 먼저 현관을 나서서 신을 신겨달라고 하고는 앞서서 나간다. 비가 내려서 나가지 못하게 했더니만 또 서럽게 운다. 아이들은 "다혜야, 언니 오빠 학교 갈다가 와서 놀아줄게 알았지?" 달려주고는 줄줄이 학교로 향했다.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집은 한차례 꽃바람이 지나간다. 다혜야, 언니가 그러더라 "난, 유치원 갈다가 와서 다혜를 만나면 그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다혜야, 나중에 엄마, 아빠가 바쁘면 너를 놀이방에 보내야 할 것인데 그때 기분 좋게 언니랑 오빠처럼 다녀오렴.

2004. 7. 21 / 댄스

다혜는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든다. 좌우로, 앞뒤로, 이제는 기술이 늘어서 무릎까지 굽혔다 폈다 하며 온갖 동작을 표현한다. 우리집엔 춤 잘추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다혜 천부적인 '춤꾼' 인듯... 막춤이라도 다혜에게 한 수 배울 분 있나요? 어제도 쇼핑몰에 가서 다혜 머리핀 하나를 사는데 그 사이에 매장의 음악에 따라 흔들며 대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 주었다.

2004. 8. 24 / 응가

다혜는 지난달부터 쉬를 가린다. 낮에는 쉬가 하고 싶으면 '응가'라고 한다. 응가가 하고 싶어도 역시 '응가'라고 한다. 어쩌다 실례를 하면 '이히'하며 나를 데리고 가서 실례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내가 수건을 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깨끗이 닦는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2004. 8.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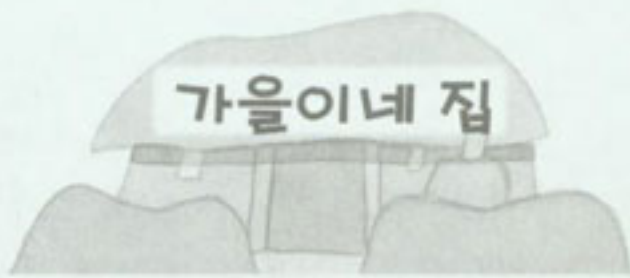
나는 언니 팬

다혜는 언니랑 오빠가 학원에 간다고 나하면 자기도 따라 나선다. 언니랑 오빠가 옷을 갈아입으면 방금 입은 새옷도 다 벗어 던지고 다른 옷을 달라고 한다. 언니들이 머리를 빗고 있으면 다음은 다혜 차례라고 옆에 와서 앉아 기다린다. 책을 읽으면 다혜도 옆에 끼어서 구경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기어이 크레파스를 얻어 한 구석에 낙서를 한다. 다혜에게 하안이가 '따라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드디어 어제는 언니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까지 한 소절 따라 했다. "나는 나는 자라가요" 코맹맹이 소리로 정확하게. 와! 혹시 다혜가 영재 아닐까?

2004. 9. 6 / 밥그릇!

우리 식구들은 밥을 먹고 나서 개인의 그릇과 수저를 설겅이통에 각자가 갖다가 넣는다. 다혜는 시키지도 않는데 언니 오빠를 따라 자신의 그릇과 수저를 야무지게 설겅이통에 넣는다. 키가 작아 발뒤꿈치를 들고서 손을 쪽 뻗어서. 요즘은 언니 오빠 엄마 아빠의 모든 그릇을 다혜가 치우려고 한다. 밥그릇이 비면 얼른 살펴보고는 재빨리 설겅이통으로 직행. 와! 그 솜씨 대단하다...





가을이네 집

2004. 8. 19 / 편안한 오후 낮잠

모처럼 더위는 가고 시원한 날씨를 가을이도 느끼는
가 봐요. 지금 3시간 동안 잠에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8월 초부터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가을
이도 힘들었나 봐요. 목이 부어오르고 헐어서 아무것
도 먹지 못하고, 밤에는 열이 삼십팔도 구분까지 올라
밤늦게 응급실에 갔답

니다. 약도 먹지 않
으려하고, 물도 잘
먹지 않고, 제 마음
이 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애
를 키워 보았지만
이럴 때는 아무생
각이 나지 않더군
요. 가을이가 아프
다고 보채고 울 때
는 나도 따라 울기
도 하고, 제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
절히 빌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제발
낫게 해달라고 때
를 써보기도 했지
만, 가을이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힘
든 싸움일 뿐... 2~3

일간의 시간과 노력끝에

가을이는 아픔을 이겨내고 요즘은 잘 먹고 예전의 모
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가을이 혼자 뒤집어서
목도 잘 들고, 잘때는 엎어서 자기도 하고, 앉혀 놓으
면 제법 팔에 힘을 주어 앉아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
은 눈에 시신경이 잘 자라서 가을이가 숫자를 알게 되
었을 때 시력검사만 받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귀도 소리를 느끼는 것 같
습니다. 며칠 있으면 청력검사를 하러 가는데 좋은 결
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답니
다. 병원에 갔다 오는대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04. 8. 27 / 기쁜날

24일은 우리 가을이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행복한 하
루였던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 앞으로 가을이
가 자라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잘 들릴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고 날아갈 듯이 행복
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가을이 아빠에게 알리면
얼마나 기쁠까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동
안 말은 안했지만 이문제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
니다. 미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지만 앞으로

남들 못지않게 우리 가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도 가을이가 개월
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따라 오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재활치료는 안 해도 될 것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키우는데 하루하루 힘들었지
만 갈수록 우리 가을이가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귀엽
고 커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요사이는 말
을 배우려는지 웅아리도 많이 하고, 낮도 가리고, 일으
켜 세우면 팔딱 팔딱 뛰고, 뒤집어서 구르기도 한답니
다. 그동안 가을이를 후원해주시고 지켜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 9. 7 /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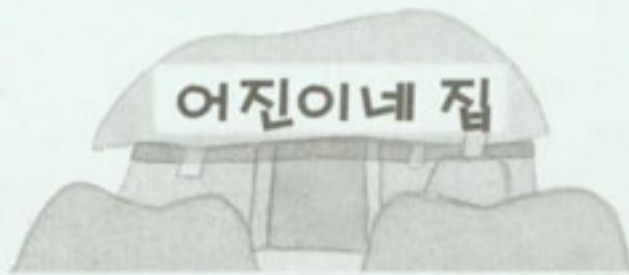
가을이가 이제는
말을 배우려는지 '엄
~마' 라고 또렷하게
말하네요. 한편으로
는 대견스럽기도 하
고 또 가슴이 메어지
기도 한답니다. 벌써
제 손에서 큰지 7개
월째. 그동안 남모르
게 가슴앓이를 한 날
도 많았지만 가을이
가 잘 자라주어 기쁨
이 더 큰 것 같습니
다. 아침에 자고 일
어났을 때는 우리 애
들이 서로 가을이한
테 얼굴에 뽀뽀를 하
려고 한답니다. 아침

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 둘만의

시간도 보내고, 같이 마주 보고 놀기도 하고, 말도 배
우고, 잠도 같이 잡니다. 일요일에는 시골에 별초하는
데 갔는데 시부모님들께서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친손
자처럼 안아주십니다. 지금 우리 가을이는 너무 행복
할 거예요.

2004. 9. 16 / 뭉든지 입으로

요사이 부쩍 밥상만 보면 같이 앉으려고 안아달라고
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워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면서 울기 시작해서 시끄러워 감당이 안됩니다. 가
을이를 안고 먹다가 밥그릇이 가을이 손가락에 걸리는
날에는 밥상이 남아돌지를 않습니다. 우유도 양이 늘
었고 이유식도 잘 먹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동
네에 가을이를 알아보는 아줌마들이 많은데, 자주보시
는 분들에게 잘 안기는데 낯선 사람이 안아주려고 하
면 그만 울어버리지요. 집에만 있으려면 온 마루를 헤
메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물건들을 잡아 쥐고는 입으로
직행이니, 한눈 팔 새도 없이 안고 있으려니 팔이 너
무 아프답니다. 지금은 가을이가 엎어져서 잘 자고 있
습니다. 조금 있다 깨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지요.



2004. 6. 16 / 아이구 까다라와라...

어진이 좀 컸다고 어찌나 까다롭게 구는지. 예전엔 밥에 국 말아 주면 잘 먹어서 예쁘다고 했는데, 요즘은 밥 먹는게 어찌나 까다로와졌는지 밥도 조금 먹고 반찬도 생선 외엔 안먹는다.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 바나나 껍질을 깔 때 조금이라도 바나나에 흠집이 나면 안된다. 흠집이 안난 것 같은데도 제 눈에 어딘가 못마땅하면 안먹겠다고 트집을 부린다. 수박도 어떻게 자르면 안 먹겠다고 난리가 난다.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빵이나 과자도 조금이라도 뜯긴 흔적이 있거나 깨진 구석이 있으면 절대 노! 놀이방에서도 제 맘에 안드는 음식이 나오면 입도 안 벌린단다. 아니, 이놈이 누굴 닮아 이렇게 까다로운거야. 집안 식구 까다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할아버지를 닮았나?? 후후..

2004. 6. 26 /
엄마 빠보

어진이는 요즘 한창 말을 배우는 시기이다. 이젠 짧은 문장을 조금씩 구사한다. 싫어. 안 먹어. 안돼. 내가. 내꺼... 아직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제일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첫 아이 낳아 키우면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신기했었던지. 요즘 어진이가 가장 예쁠 때인 것 같다. 며칠 전 아빠가 바쁘셔서 엄마가 어진이 데리러 놀이방엘 갔더니 우리 어진이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우리 엄마다!"라고 빼기는걸 보니 어찌나 이쁘던지... "아이고! 엄마가 늙어서 미안해서 어찌냐" 놀이방 선생님이랑 같이 웃었다. 요즘은 또 '바보'라는 소리를 곧잘 한다. 오늘은 엄마가 제 뜻대로 해주질 않는다고 "엄마 빠보"라고 해서 나도 "어진이 바보"라고 했더니, "아니야 엄마 빠보" 한다. 다시 "어진이 바보"했더니 "아니야 엄마 빠보" 하며 엄마를 막 때린다. 아이고 이놈 보소. 엄마를 마구 때리다니. 그래 엄마는 빠보다. 어진이도 바보!

2004. 7. 22 / 황소고집

아이를 키울때 야단을 더 맞는 아이가 있다. 고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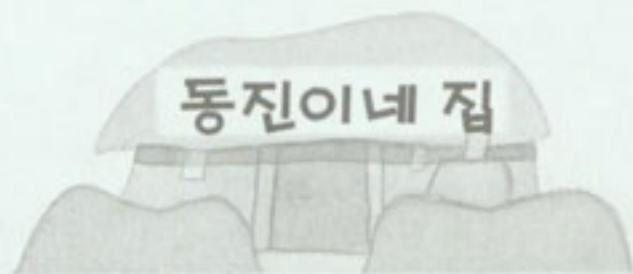
센 아이, 그리고 울음이 질긴 아이. 우리 어진이는 고집이 센 편이고 또 수틀렸다 하면 30분 한시간 울기도 한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야단을 막 치기도 어렵고 또 마냥 울게 두기도 어려워서, 울면 달래기도 하고 제 비위를 얼른 맞춰 주곤 했다. 며칠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놈의 황소고집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밤에 한시간 가량 울었다. 여름인데도 아랫집 윗집 들릴까봐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니 저도 땀 범벅 나도 땀 범벅. 건너방에서 잠이 들었던 아빠가 일어나 들어와서 뚝 그치라고 야단을 쳐도 듣나... 나는 아이를 달래려고 안고 흔들어 대는데 아빠가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한다. 회초리를 들고 들어왔다. 밤에 아이를 때리면 안된다고 나는 땀을 흘리며 끌어안고 있고. 한 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나보다. 어진이 끝끝내 울어 제치더니 결국 형아방으로 가서

형아가 달래는 걸로 막이 내렸다. 어진이 땀에 엄마 아빠 싸울 뻔 했잖아. 아빠 말씀이 엄마가 아이를 너무 오냐 오냐 해서 아이가 고집이 세단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나가 있어요. 내가 달랠테니... 나는 아빠가 어진이 세게 야단치면 그게 싫고 눈물이 난다. 어진이, 아 그놈의 황소고집.



2004. 8. 26 /
엄마밖에 난 몰라

8월 내내 가득한 식구들이 어제 모두들 떠나고 우리 7식구 남았다. 그 덥고 더운 날씨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하고, 이부자리 빨래며 이방 저방 옮겨 놓은 짐 보따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지만, 까짓거 그거야 좀 천천히 하면 어때. 어진이 그동안 너무 많은 식구들 때문에 재미있기도 했지만 힘들었다. 엄마가 도무지 제 차지가 되질 않아 보채고 성질내고 떼쓰고. 요즘은 또 놀이방 가기가 싫어 아침이면 한바탕 난리가 난다. 마음 같아선 그냥 데리고 있고 싶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그게 좀 어렵다. 어제 하루 종일 엄마랑 붙어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다. 형아가 "아니 어진이가 왜 이렇게 착해졌어. 울지도 않고..." 어진이는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 아니다. 엄마에게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 노는 것도 엄마랑, 장난감도 엄마랑, 텔레비전도 엄마랑 붙어서. 어찌 그리 엄마가 좋을꼬... 너는 좋지만 그러면 엄마는 좀 힘들어...



2004. 6. 25 / 동진의 유머 돌

동진이가 불쑥불쑥 내뱉는 한마디가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소개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동진이가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가장 신경 쓰이던 치과검진에서 충치가 2개나 있어서 안타깝지만 간염검사에서는 면역이 생성되어 있다는군요. 검진하던 날 집으로 돌아온

동진이가 하루의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진짜 무섭더레이, 주사가 피 빨아 먹더라!!" 어제 저녁 식탁에 무를 얇게 썰어서 씹을 싸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모부가 씹을 싸서 맛있게 먹으니 동진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기어코 식탁을 뒤집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모부는 휴지도 먹나???"



2004. 7. 1 / 헛갈리는 하루

요즘 해가 길어져서인지 오후의 동진이 행적을 종잡을 수가 없네요. 미술학원 끝나면 그대로 밖에서 노는 날이 많고, 어떤 날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방만 던져 놓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지요. 일곱시쯤 해서 밥 먹자고 부르면 아쉬운 듯 들어와서 얼른 한 그릇 해치우곤 또 다시 놀다오게요! 하고는 사라집니다. 어제는 여덟시가 넘어도 안오길래 나가봤더니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며 놀더군요. 그냥 보기엔 별로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냥 깔깔대며 신이 났더라구요. 겨우 데리고 들어와서 씻겼지요. 근데 헛갈리는건 지금부터. 갑자기 "왜 밥안먹어?" 하네요. 아까 저녁 먹었잖아. 했더니 "이제 깜깜해졌으니 밥먹어야지" 결국은 하루 네끼가 된답니다. 열심히 놀고 많이 먹고 무력무력 자라라.

2004. 7. 24 / 무서운 이야기

요즘 너무 더워서 밤마다 강변으로 바람 맞으러 나가지요. 장마가 끝난지 한참이라 물이 줄어서 냄새는 약간 나지만, 그래도 한결 시원해서 뛰다가 걷다가 운동

겸해서 다녀오지요. 어젯밤이었어요. 누나는 숙제땀에, 동진이는 한자쓰기 땀에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하여 신랑이랑 둘이서 운동을 마치고 10시쯤 아파트 마당에 들어섰는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동진이가 아닌가 싶어 부랴부랴 올라왔더니 울음은 그쳤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더군요. "왜 울어?" 했더니 "이모, 무서워! 누나야는 자는데 도둑 오면 어떡해?" 하네요. 누나가 숙제하다가 잠들었는데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홍시를 녹여서 먹이며 아주 무서운 꽃감 이야기를 해주고 달랬지요. 날씨는 무진장 덥지만 동진이는 아주 잘 지낸답니다. 짜증과 고집이 눈에 띄게 줄어서 어쩔 땐 신기하기까지 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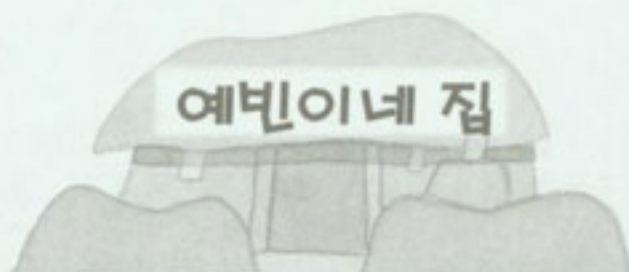
2004. 8. 19 / 동진의 유머 셋

올림픽에 태풍에 그리고 정치에 복잡 한 요즘이네요. 동진이는 얼마전부터 새로이 시작한 합기도에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고 있어요. 도장에서 돌아오면 그 날 배웠던 걸 해보이기도 하고 이모부랑 힘 자랑도 하곤 하지요. 오늘 저녁식사 후에 컨디션 좋은 동진이가 자기만의 춤 (팔을 길게 뻗어 아래위로 흔들면서 팔씩

팔씩 뛰는) 을 추다가 욕실에 있는 이모부가 나오면 같이 이모부 앞에서 추자는 겁니다. 안하겠다고 했더니 동진이가 특유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부끄러워요 이모? 결혼까지 했으면서...!!!"

2004. 9. 10 / 왜 여기서 자?

이건 비밀인데... 딱 한 번 동진이가 잠자다 쉬가 마려워 화장실 간다는게 거실 장식장 옆에다 시원스레 실레한 적이 있었지요. 요즘은 잠도 잘 자구 화장실도 아주 잘 찾아 가지요. 근데 윤석이 가끔씩 쉬가 끝난 후 번지를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겨요. 잠결에 남편인 줄 알고 안다가 보드라운 살결의 느낌이 달라서 깨어 보면 어느새 둘 사이에 딱하니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게 아닙니까!! 며칠 전에는 동진이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깨웠더니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 혼자만" 그리고 요즘 동진이가 가장 즐겨쓰는 말이 있는데. "이모야, 날 사랑한다면 양말 좀 벗겨 줘!" "날 사랑한다면 밥 좀 남기게 해줘!" 지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만 써먹지요.



2004. 8. 3 / 올해도 예빈이의 물놀이는...

아빠!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1박2일 예정으로 무창포를 찾은 우리가족은 올해도 예빈이의 물놀이 실패로 갯벌에서 가재와 조개만 잡고 왔다. 수영복 아까워 죽~겠네. 지 수영복 사느라고 월매나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왜 물이 그렇게 무서운거야. 갈라진 바닷길은 얼마나 신나게 걸던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는 예미가 지를 위해 큰땀 먹고 갔다. 집에 오니 오빠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성당엘 갔다. 팽이버섯+무+대파+빨간고추 어슷 썰고 두부 넣고, 정말 환상적인 이 맛! 배부르게 먹고 미사참례를 하러 갔는데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고 있는 오빠를 발견한 예빈이 "어! 오빠다 오빠! 아빠! 오빠 있어요!" 미사가 끝나니 오빠에게로 쩍싸게 뛰어가 안기더니 깔깔거리며 볼을 비비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다. 하루 안봤는데 십수년만에 만난 것처럼 난리다. 올 여름 우리집 휴가는 이렇게 끝났다.

2004. 8. 5 /
이게 칭찬이야 뭐야!

얼마전 어린이집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예빈이가 요즘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시면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먼저 쉬~ 하고 있는 친구를 변기에서 끌어내리며 "안돼! 예빈이 해야 돼!" 하고 올라왔으니 그 친구는 쉬하다 말고 끌려 내려와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장난감도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타서 노는 입장이더니, 이제는 제가 다 끌어안고 나눠주는 입장이라네요. 예빈이를 무릎에 앉히고 "차례대로 해야지. 네가 늦게 갔는데 먼저 쉬하고 있는 친구 끌어내리면 친구 팬티가 다 젖어버리겠지?" 네! "장난감도 친구들하고 같이 갖고 놀아야 되고" 네! (아구구 대답은 잘한다) 너 누구야? 이쁜 토끼요. 이쁜 토끼는 이쁘게 노는 거지? 네! 내일부터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수 있나요? 네!네! 선생님 한다. ㅎㅎㅎ 못말려.

2004. 8. 16 / 불안한 맘 언제쯤이면...

어제 교중미사 참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동안 만난 성당의 한 자매님이 예빈이를 보고 아유! 많이 컸네. 하시며 손을 잡았다. 이럴 때면 예빈이는 항상 긴장을 한다. "예빈아! 아줌마 집에 갈래? 아줌마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응?" 물론 그 자매님은 예빈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한 말이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해야 하나, 암튼 나를 쳐다보며 너무 슬프게 우는게 아닌가. 옆에 있던 아빠가 아차 싶어 얼른 안아주며, "안되요 예빈이 엄마랑 아빠랑 살아야 되요. 그렇지?" 하니 까 응! 하며 "오빠랑 언니랑두 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 하고 아빠를 보며 다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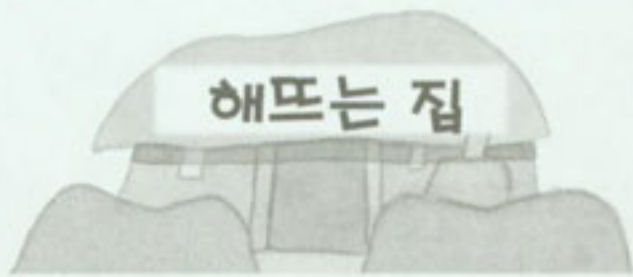


2004. 8. 23 /
좀 조용히 살자!!!

요즈음 우리집이 넘넘 시끄럽다. 이쁜토끼(자칭)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아빠가 노래를 부르면 시끄러워! 한다. 못들은 척 계속 부르면 아빠 입을 틀어막으며 "시끄럽다니까!" 하며 난리다. 자기 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2004. 9. 14 / 살롬, 당신들에게 평화 있기를...

"살~롬 살롬살롬살롬, 살~롬 살롬살롬살롬 당신들에게 평화 있기를~ 우리아빠에게 평화 있기를~ 우리엄마에게 평화 있기를~" 노래를 하나 배우면 가사에 꼭 식구들을 넣어 다시 부른다. 어린이집에서 호야가 예빈이 얼굴을 꼬집었다고 맘매해달라고 이르고, "선생님한테 홈프러스 갔다 왔다고 했거든 선생님이 또 갔다 왔어?" 한다고 선생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엄마가 열나고 아파서 못일어나니까 내이마를 만져보고는 "아구 클났네. 아빠! 클났어요. 엄마가 뜨거워요. 빨리 약 사주세요. 아구 클났다"하며 걱정을 해주는 효녀이기도 하다. 요즘 들어 저녁마다 업어달라고 협박(?). 못들은척 빨리 안업어주면 "빨리 업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업기로 변한답니다. 얼마나 잘먹고, 얼마나 잘노는지, 예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와서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며 "엄마 사랑해! 고마워 엄마도 예빈이 사랑해!" 응 고마워! ㅎㅎㅎ



2004. 9. 5 / 무슨 이런 황당한...

며칠 전이다. 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캔음료수와 빵을 하나씩 들고 왔다. 학급에 생일을 맞은 친구 엄마가 반 전체에 한턱을 낸 것이다. 왜 안먹고 가져왔냐고 묻자 언니랑 같이 먹을거란다. 점심 식사를 하고 피아노 학원에 가면서 사무실 냉장고에 고이 간수를 해놓았다. 그런데 학원에서 돌아온 혜진이가 식탁에 놓인 빈 캔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마침 진범인 효점이 이모를 발견한 혜진이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이모가 먹었어?" 효점이 이모 참 얼마나 난감했을까? 꼬맹이 간식 뺏어먹은 형국이 되어버렸으니... "미안해! 이모가 다시 사줄게!" 하는 걸로 겨우 무마를 해놓았던 모양인데 그 날이 효점이 이모 직장체험연수 끝나는 날인 걸 혜진이가 알 턱이 있다. 다음 날 효점이 이모를 열심히 찾는데... 혜진아! 어찌겠니. 효점이 이모 아마 너보다 더 속상할지도 몰라. 음료수 먹으면서 설마 혜진이건 아니겠지 했었는데... 효점이 이모! 빨리 혜진이랑 한 약속 지켜라. 안그럼 내가 매일 볶일 것 같애. 매일 "이모 오늘도 안 와?" 할까봐...

2004. 7. 19 / 애들아! 잘있니?

요즈음 이사갈 대명동 건물 리모델링 작업으로 거의 매일 현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두 번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사병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가형이, 준호, 동욱이도 보고 싶고, 대호 아토피는 좀 나았는지 궁금하네요. 요즈음 아빠가 왜 안오는지 아이들이 알까요? 애들아 아빠는 너희들 살 집 만든다고 뱃살(?)이 다 빠졌단다. 한 달만 기다려줄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으로 너희들 데리고 갈거야. 러브하우스처럼 만들고 있으니깐 기대하렴. 아~ 보고 싶어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

2004. 9. 15 / 좋은 이웃들

요즈음 환절기인지라 아이들이 감기가 심합니다. 우리집의 막내 영혜가 열이 높아 오랜만에 지난 번 살던 동네(상인동)에 있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4년이 넘도록 살았던 곳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선지

2004. 9. 15 / 시험준비에 들어간 유현이

이번 주부터 유현이는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한다. 주말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었다. 시험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수업을 10시까지 한다고. 유현이도 적용이 되었는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제는 10시 30분이 넘어서 집에 왔다. 기운이 하나도 없이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는 아이를 보니 참 안쓰러웠다. 1학기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다고 한다. 아마 몇몇을 빼고는 다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모두들 학교공부 외에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데 왜 이런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학원에 다니는걸 유현이 자신이 원하니 말리기도 어렵다. 게다가 2학기에 들어가자 거의 매일 교재비를 가져가야 할 정도로 교육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났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교과서 외에 따로 문제집을 다루는 것 같다. 아직 1학년인데 이러면 3학년 되면 정말 애 잡을 것 같다. 교육문제 심각하다 해도 유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다. 불쌍한 아이들! 너무 많은 정보와 자료들 속에 파묻혀 시간을 모두 저당잡혀 버린 불쌍한 세대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며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우리가 이사를 간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식육점, 슈퍼마켓, 노점에서 나물파는 할머니들, 사람좋은 내과 의사선생님은 일일이 아이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텃주기를 좋아하던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끝까지 따라와서 땅콩 두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오면서 독백처럼 오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만하면 잘살았지요? 보고 싶어하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대명동에서도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 부모교육



2004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동육이네 집에서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 부모님들과 예비 대안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대안가정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영주에서 길을 찾는다고 헤메느라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부모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뒤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하고 교육 시작...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번역동화집을 통해 본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대안가정 사례 나누기, APT부모교육 소개, 대안가정운동본부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과자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동육이와 다혜, 얌전하게 혼자

과자를 먹는 가은이... 다행히 엄마 아빠를 따라온 어린 친구들이 협조를 잘 해주어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비빔밥, 떡볶이, 김밥 등 맛있는 점심을 하면서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비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위탁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교육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10월에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부모교육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PT (Active Parenting Today 적극적 부모교육 훈련)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회
기마다 2회차씩 3차례에 걸쳐 APT(Active
parenting Today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를 실
시했습니다. 이번 부모교육은 영주지역의 대
안가정과 대기 대안가정을 대상으로 동육·가
은이네 대안가정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차 : 적극적 부모란 ▷2차 : 용기와 자기
존중감 불어넣기 ▷3차 : 자녀를 이해하기 ▷
4차 :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5차 : 협동심을
구하기 ▷6차 :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 부모
라는 주제로 매주 4시간씩 함께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목욕을 하고, 침대위에서 뛰어
놀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대현이네, 아

이들이 어릴때 잘 안봐주던 아빠가 새벽에 가
은이가 일어나서 울면 토닥이면서 달랜다는
동육·가은이네, 엄마가 외출했다가 현관에
들어서면 두 팔을 번쩍 들어 귀에 붙이고 반
갑게 맞이한다는 다혜네, 교육을 받으며 자녀
들을 키울 때 기억을 떠올리셨던 대기 대안가
정 고언남 어머니님...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
고,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육·가은이네에서 간식으로 준비해주신
맛있는 호박고구마 잘 먹었습니다.



■ 현황 및 소식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아동- 친부모 인양	기타	계	신규 신청 가정	신규 회 아동
	위탁 의뢰 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 가정 신청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7월	33	5	34	14	5	-	13	-	3	107	10	8
8월	30	7	16	25	12	-	14	-	6	110	6	7
9월	22	4	11	6	3	3	4	-	1	54	2	4
분기계	85	16	61	45	45	3	31	-	10	271	18	19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7월	97	7	3	-	-	107
8월	95	7	7	1	-	110
9월	44	4	2	4	-	54
분기계	236	18	12	5	-	271

■ 본부소식

• 복지순례단 기관 방문

7월 30일 복지순례단이 기관 방문을 왔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명의 학생들이 전국을 순례하는 모습에서 복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위탁아동 무료 온라인 교육 실시

9월 13일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중 [교육출발선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사업에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위탁아동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동들이 조인스스터디의 교육 프로그램(한글, 영어, 수학, 미술, 동요, 창의력 개발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북윗마을 대안가정 부모교육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동욱이네 대안가정에서 경북윗마을 대안가정 및 예비대안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경북윗마을 APT 부모교육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3회에 걸쳐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 부모님과 대기 대안가정 부모님을 모시고,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대안가정의 활발한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 2004년 하반기 이사회

10월 22일 오후 7시, 대안가정운동본부 교육실에서

2004년 하반기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04년 3/4분기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하반기 사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대안가정 초청음악회

10월 30일(토) 오후 6시, 대안가정 초청음악회가 KT&G 영주제조창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솔송 남성합창단의 창단공연이기도 한 이날 공연에는 4백여명의 관중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감동을 함께 나누었고, 공연 중 대안가정에 대한 소개와 홍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형 이사장, 이태원 이사, 김명희 사무국장, 정민경 상담원이 함께 했습니다.

■ 아이들 소식

• 대인(9세,남)

대인은 지역 공부방 선생님을 통해 의뢰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가출해서 연락두절이고, 아빠는 가끔 연락은 되나 집에는 거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일흔이 넘는데다 두 분 다 풍이 있어서 대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인과 오래도록 사랑을 나눌 대안가정을 찾습니다.

• 혁진(26월,남)

혁진은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할머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수감중이고, 엄마는 약간의 장애가 있어 현실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태입니다. 최근 할머니가 아랫배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혁진을 돌보아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혁진을 돌보아줄 대안가정을 찾습니다.

• 예지(8세,여) · 예진(4세,여)

이혼 후 엄마가 키우다가 3개월 전부터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10년전에 혈값에 팔아치운 트럭의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어 수급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빠는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가거나 타지역으로 일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예지와 예진을 돌봐줄 대안가정을 기다립니다.

■ 외부행사

• 제2차 국제가정위탁교육 참가

9월 16일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차 국제가정위탁교육에 정민경 상담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3/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4년 7월 ~ 9월)

■ 3/4분기 재정보고

이사회비		김진석	30,000	이옥화	30,000
김규원	90,000	김하수	20,000	이원삼	30,000
송광익	150,000	김현희	30,000	이유미	15,000
우극현	90,000	김호근	15,000	이윤근	300,000
은재식	60,000	김휘동	30,000	이운재	30,000
이수형	600,000	나눔회	60,000	이일영	20,000
이왕욱	90,000	동진산업	60,000	이재성	60,000
이태원	150,000	문우경	30,000	이재은	15,000
정영숙	90,000	박기호	40,000	이종미	20,000
		박대산	30,000	이지은	30,000
		박문욱	30,000	이창훈	40,000
		박미경	30,000	이춘희	30,000
		박성천	30,000	이현숙	30,000
		박신연	30,000	이혜영	30,000
		박연금	30,000	이혜진	15,000
		박옥란	30,000	이호용	60,000
		박인주	40,000	이효순	30,000
		배성훈	30,000	임아정	10,000
		배창환	10,000	임영진	15,000
		배태순	60,000	임진규	15,000
		백기웅	30,000	장경은	30,000
		백석환	30,000	장경철	30,000
		빈은선	60,000	장병화	30,000
		서숙	30,000	장호덕	30,000
		손성라	30,000	정경란	60,000
		송계무	30,000	정미옥	60,000
		신병규	30,000	정민경	10,000
		신은정	20,000	정용성	30,000
		심진완	30,000	정은주	30,000
		심형순	15,000	정희우	15,000
		안의진	30,000	조운주	90,000
		안이정선	30,000	조현정	15,000
		안춘옥	15,000	진사모	90,000
		양덕근, 김혜경	40,000	채승욱	30,000
		양정희	30,000	최경호	30,000
		오길수	30,000	최봉진	15,000
		오은환	60,000	최상근	20,000
		오직렬	20,000	TCN대구방송	150,000
		오찬현	30,000	하정욱	50,000
		우연조	30,000	한국케이بلTV	150,000
		우연경	30,000	한미경	60,000
		유순정	15,000	한은희	30,000
		유은주	20,000	허유희	30,000
		유호상	30,000	홍동표	30,000
		은창숙	10,000		
		이건호	30,000		
		이문기	40,000		
		이미선	2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상유	10,000		
		이상훈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20,000		
		이신자	30,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60,000		
		이영희	30,000		

일반후원

김광재	30,000
삼성탈레스기구설계그룹	531,000
이태규	20,000
허정미	60,000

물품후원

배순균:사과 한상자	
나눔공동체:군만두,	
아이스크림	

세입		세출	
관항	목	관항	목
회비	6,875,000	사무비	8,989,420
회비	6,875,000	인건비	6,650,880
이사회비	1,320,000	급여	5,550,000
정회원회비	475,000	제수당	750,000
후원회원회비	5,080,000	보험부담금	350,880
후원금	641,000	업무추진비	199,480
후원금	641,000	기관운영비	80,000
일반후원금	641,000	회의비	119,480
		운영비	2,139,060
		여비	184,300
		수용비	749,070
		공공요금	624,800
		차량비	454,940
		잡비	125,950
		사업비	2,048,210
		일반사업비	2,048,210
		상담사업	53,050
		교육사업비	209,080
		대안가정지원	866,000
		출판홍보사업	920,080
총계	7,516,000	총계	11,037,630
1/4분기 이월금	9,009,430	잔액	5,487,800
합계	16,525,430	합계	16,525,430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안가정 초청음악회-



10월 30일(토) 오후 6시, 대안가정 초청음악회가 KT&G영주제조창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백여명의 관중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감동을 함께 나누었고, 공연 중에 대안가정 가족들 소개와 대안가정에 대한 홍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실 월동준비기금 마련을 위한

“대안가정운동본부 날씨 속보!!!”

"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2층 양옥집인 대안가정 사무실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져 화장실, 책상 밑 등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상근자들은 내복착용 및 난로정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난방비로 매월 약 40~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실 월동준비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바람 거세고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늘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이번 겨울을 무사히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월동준비기금은 대구은행(068-05-005600-9, 대안가정운동본부)으로!!!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906
좌석 306, 600, 608